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 연구

- <별에서 온 그대>, <리멤버>, <미세스 캅>를 중심으로 -

박상원*

주제어 : 공감, 단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양가감정, 재벌, <리멤버>, <미세스캅 2>, <별에서 온 그대>, 텔레비전드라마

1. 들어가며

본고는 2010년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소시오패스(sociopath)’ 캐릭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그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는 글이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혼용해서 쓰이나 원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원인의 측면에서, 사이코패스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불가로 인한 생물학적·선천적 장애이고, 소시오패스는 성장 과정과 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심리학적·후천적 질병이다. 감정의 측면에서,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어서 타인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소시오패스는 감정이 있되 타인에게 공감을 하지 않는 것이다.¹⁾²⁾ 즉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욕망/이익 등을 타인의 가치보다

- 1) 19세기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사이코패스는 1941년 Cleckley의 저서 『The mask of sanity』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되었다. 그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며, 공감 능력과 죄책감이 없고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성을 지닌 정신병적 성향이다.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인 Hare는 사이코패스가 감정·대인관계 측면에서 ①달변이며 깊이가 없다, ②자기중심적이며 과장이 심하다, ③후회나 죄의식 결여, ④공감 능력 부족, ⑤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다, ⑥피상적인 감정, 사회적 일찰 측면에서 ①충동적이다, ②행동 제어가 서투르다, ③자극을 추구한다, ④책임감이 없다, ⑤어린 시절의 문제행동, ⑥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총 20개 문항, 각 항목 당 0~2점으로 측정되어 총합 30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간주되는 PCL-R을 제시했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사이코패스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로버트 D. 헤어, 조은경·황정하 역, 『진단명 :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상인격자』, 바다출판사, 2005, 65~116면 참조).
- 2) 사이코패스는 감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극적 갈등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만큼 극 예술의 캐릭터로 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라 칭해져 왔던 텔레비전드라마의 캐릭터는 사실 대부분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사이코패스의 본래 의미에 가까운 캐릭터는 <뷰티풀 마인드>(KBS, 2016)의 ‘이영오’ 정

<차례>

1. 들어가며
2.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구현 양상
3.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응징과 양가감정
4. 계층적 단절과 소시민적 정의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2010년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글이다. <별에서 온 그대>, <리멤버 - 아들의 전쟁>, <미세스캅 2>에 등장하는 세 명의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를 대상으로 작품 안에서 이들이 그려지는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재벌 소시오패스는 타인에게 공감을 하지 않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기본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세 작품에서의 재벌 소시오패스는 각자의 개성이 강조되고, 평범한 개인의 일상에게까지 파고드는 더욱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소시오패스 성향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부터 발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재벌 소시오패스는 부모로부터 부정당하는 순간 큰 좌절을 느끼고, 이는 사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 인과응보식 결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벌 소시오패스는 공적인 측면에서도 응징되는데, 이는 재벌에 대한 대중의 양가감정이 작용한 결과이다. 재벌에 대한 동경과 불만이 공존하는 현실 상황에서 그들을 응징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자기모순을 상쇄하는 장치로써 소시오패스 설정이 활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과 소시민의 대립 구도는 갈수록 소통이 요원해지는 한국사회의 계층적 단절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결국 공권력을 통한 재벌 응징과 소시오패스 설정을 통한 그 응징의 당위성 확립은 대중의 자기모순으로부터 비롯된 상상적 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대중의 자기파괴적 인식, 즉 안정과 평화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절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이기적인 성격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 캐릭터의 등장은 “허구이면서 동시에 영화적 상상 이전에 현실의 공포를 재현한 것으로써 또다시 현재의 역사에 관여하는”³⁾ 실제적 삶의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연쇄살인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악(惡)으로서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를 인식하고 있고, 이는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이들이 공포스러운 괴물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때의 괴물은 “질서구축 경향과 질서와해 경향이 공존하는 격변기를 상상·경험하는 사회적 신체가 자신의 상태를 지시하는 말, 표상, 관념”⁴⁾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현대사회의 괴물이 된 소시오패스/사이코패스는 동시대의 담론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징후⁵⁾라 할 것이다.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소시오패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 방송된 <싸인>⁶⁾부터라고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가 하나의 캐릭터로 본격화

도라고 할 수 있다.

- 3) 오승현, 『사이코패스 영화에 내재된 정치적 무의식 : <악마를 보았다>,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2집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1, 141면.
- 4) 이창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 ‘괴물’과 ‘근원적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5면.
- 5) 프랑코 모레티는 공포문학과 그것이 그리는 괴물이 “분열된 사회의 공포로부터”만 들어졌다고 말한다(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 새물결, 2014, 20쪽). 현대사회의 괴물 소시오패스는 현실 속 범죄자로 인한 불안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된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를 계층적 단절 상황으로부터 배태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 6) 김은희·장항준 극본, 김형식·김영민 연출, SBS, 총20회, 2011.1.5~2011.3.10. 이 작품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살해하고, 그 계획에 관련된 이들을 모두 죽이며, 마지막으로 주인공마저 살해하는 여당 대권후보의 딸 ‘강서연’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으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는 세 작품의 캐릭터와는 달리 강서연에게는 소시오패스가 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악행이 권력층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캐릭터로서의 개성적인 면모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싸인>의 강서연은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시초격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본고의 논의는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아직 많지 않다. 권양현⁷⁾은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변모 양상을 살피면서 범죄자 캐릭터를 사이코패스로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어쩌서 하필 사이코패스였는지, 그 필연적 맥락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소시오패스 캐릭터에 대한 선행연구는 영화를 비롯한 인접 학문 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박시성⁸⁾은 영화에서의 사이코패스 설정이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망의 속성, 금지와 위반에 대한 도착, 규칙과 질서라는 타자성의 수사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오승현⁹⁾은 스릴러 장르에서의 사이코패스 캐릭터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괴물로서 타자화되는 사이코패스와 그에 대한 사적 복수, 공권력의 부재, 광기의 발흥 등이 한국사회 폭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화정¹⁰⁾은 장르적 정체성이 사이코패스 설정으로부터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폈다. 기존 스릴러 장르의 중심이었던 복수 서사가 가족/멜로 서사에 의해 과기되거나 실패하면서 한국 스릴러 장르 영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사이코패스 캐릭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사회문화적 의미를 짚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동준¹¹⁾은 사이코패스의 이론적 개념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

- 7)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251~278면.
- 8) 박시성, 『영화 속 사이코패스에 관한 라깁 정신분석적 고찰 : 욕망과 위반의 담론』, 『라깁과 현대정신분석』 제11권 2호, 한국라깁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9, 67~85면.
- 9) 오승현, 앞의 논문, 139~163면.
- 10) 이화정, 『스릴러 장르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관계 연구 : 최근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11)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 개념의 문제점과 이론적 위험성, 그리고 사회학적 함의』, 『현상과 인식』 제35집 1·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면서 그것이 더 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물학적/심리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현대사회에서는 때때로 사회의 정상적인 가치와 합치되곤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중매체의 재현 양상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선¹²⁾ 역시 대중매체와 사이코패스 인식의 영향 관계를 지적했다. 대중은 실제보다 사이코패스를 지나치게 과잉되게,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유발하는 것은 범죄를 보도하는 언론과 사이코패스를 편협하게 재현하는 대중문화라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 소시오패스는 실제 현실의 문제이자 이를 반영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텔레비전드라마에서 소시오패스 설정은 재벌과 결합되어 구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지고 있다. 극예술의 전통적인 안타고니스트인 ‘부자’와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범죄자로 꼽히는 ‘소시오패스’의 결합은 쌍방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함께 논구해야 할 이유가 된다. 요컨대 재벌가에 대한 동경과 질시라는 애증의 감정,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괴물에 대한 공포와 매혹의 감정 등이 한데 뒤섞여 부와 권력을 지닌 재벌 소시오패스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를 “후천적·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재벌가 악인”¹³⁾으로 규정하고,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¹⁴⁾ <리멤버 -아들의 전쟁>

147~173면.

12) 박지선,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한국범죄학』 제8집 2호, 대한범죄학회, 2014, 145~175면.

13) 죄책감은 “공감적 고통과 자신이 괴롭힌 사람에게 손을 뻗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고, “타인과의 유대와 사회적 결합을 필요로 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이다(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148~149면). 재벌 소시오패스는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이러한 인간성을 상실한 인물이다.

14) 박지은 극본, 장태유 연출, SBS, 총21회, 2013.12.18.~2014.2.27.

(이하 <리멤버>),¹⁵⁾ <미세스캡 2>¹⁶⁾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¹⁷⁾ 이들 작품에서는 각각 S&C 그룹 후계자 ‘이재경’(신성록 扮), 일호그룹 후계자 ‘남규만’(남궁민 扮), EL 캐피탈 대표이사 ‘이로준’(김범 扮)이라는 부와 권력을 지닌 재벌 소시오패스가 등장한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세습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악행을 저지르고, 그 악행은 주인공의 행보와 맞닿으면서 갈등을 빚어낸다. 즉 이 세 작품은 소시오패스라는 괴물의 근원에 재벌 부모를 배치시킴으로써 재벌과 소시오패스의 결합이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명하기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이들의 소시오패스 성향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작품 안의 소시오패스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들에 대한 응징이 지닌 의미를 논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재벌과 결합한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한국사회의 어떤 무의식과 연동하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부자라는 전통적인 악과 소시오패스라는 새로운 악이 결합된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본고의 논의를 통해 한국사회의 현주소가 텔레비전드라마 안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15) 윤현호 극본, 이창민 연출, SBS, 총20회, 2015.12.9.~2016.2.18.

16) 황주하 극본, 유인식 연출, SBS, 총20회, 2016.3.5.~2016.5.8.

17) 2010년대 이후 소시오패스 캐릭터 자체가 마치 유행처럼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등장인물 소개나 작품 안에서 명확하게 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로 등장인물을 명명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2.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구현 양상

<별그대>는 장르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멜로, 혹은 로맨스드라마라 할 수 있고, <리멤버>와 <미세스캅 2>는 법정, 혹은 수사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들이 단순히 범죄 사건의 악인, 주인공의 적대자로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¹⁸⁾ 이 장에서는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작품 내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별그대>는 외계인 도민준과 지구인 톱스타 천송이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로서 소시오패스 이재경이 존재한다. S&C 그룹 후계자인 그는 애인 한유라를 살해하고 범죄의 증거물을 천송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 작품에서 이재경이 저지른 범죄는 사업에 방해되는 일반인·친형·그룹 이사·한유라 살해, 전 부인 감금, 유석 검사·천송이 살인 미수 등이다. 작품 말미에 이재경은 도민준과 동생 이휘경에 의해 실체가 밝혀지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은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 범죄행각이 드러났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¹⁹⁾ 하지만 이와 달리 이재경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무엇보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않는 소시오패스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18) 박시성은 상업성이 짙은 호러/수사스릴러 장르영화에서 사이코패스가 관습적인 절대악으로 묘사된다고 보았다(박시성, 앞의 논문, 73쪽).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도 수사드라마의 범인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본고의 세 작품은 범죄자로서라기보다 제벌이라는 속성이 더 강한 바 장르성과는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9) 권양현, 앞의 논문, 258면.



<장면 1>

<장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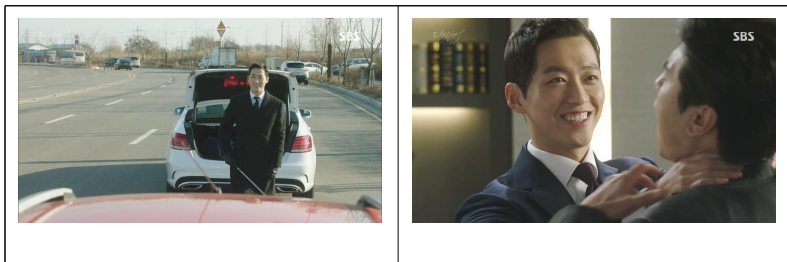
<장면 1>은 도민준에게 마취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다.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듯 웃고 있는 표정을 통해 그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헤어가 제시했던 소시오패스의 특성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중심성’, ‘죄의식 결여’, ‘공감 능력 부족’은 이처럼 캐릭터의 표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강조된다.

한편 이재경은 <장면 2>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전 반드시 반지를 매만지면서 “건강관리 잘해.”라고 말한다. <싸인>의 강서연이 상대적으로 평면적인 악인으로만 묘사되었던 것에 비해 이는 소시오패스 캐릭터로서 이재경이 개성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감금한 전 부인의 전화에 “물론 난 나쁜 사람 아니야. 여태 죽인 사람보다 죽이고 싶었지만 살려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넌 후자에 속해. 그러니까 난 네가 나한테 애원할 게 아니라 고마워하길 바래.”(2회)라고 말하는 대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3장의 인용 대사와 마찬가지로 특권의식에 기인한 편협한 논리에 불과하다. 자기만의 철학을 장광설로 내뱉으며 한껏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이러한 특성은 헤어가 제시한 소시오패스 특성 중 ‘달변가이나 깊이 없음’ 항목에 해당된다.

이후의 작품들에서도 소시오패스의 기본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한편 각자의 개성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캐릭터가 구현되고 있다. <리멤버>는

주인공 서진우가 아버지 서재혁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 투쟁을 벌이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소시오패스 남규만은 서재혁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인물이자 끝까지 서진우의 진실 입증을 방해하는 인물이다. 일호 그룹 후계자인 그가 저지른 범죄는 오정아 강간 살해, 다수의 연예인 지망생 강간, 일호생명 부사장 성추행 조작, 비서·여성 운전자 폭행, 마약 상습 투약, 경찰 협박 및 매수 등이다. 서진우에 의해 법정에서 이상의 죄가 낱알이 밝혀지고 구속된 남규만은 교도소에서 자살한다.

<별그대>의 이재경이 반복되는 행동과 대사로 개성화되었다면, <리멤버>의 남규만은 분노조절장애²⁰⁾라는 극도의 폭력성을 개성으로 삼고 있는 캐릭터다. 상술한 저지른 범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다른 소시오패스들과 달리 살인을 많이 저지르지 않는다. 유일한 살인인 오정아 사건 또한 마약과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충동적 사건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살인을 선택하는 여타 소시오패스 캐릭터와 달리 남규만은 폭행을 주로 함을 알 수 있다.



<장면 3>

<장면 4>

20) 분노조절장애는 아직 정식질병으로는 간주되지 않지만, 2010년 이후 꾸준히 환자수가 증가하며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규만의 분노조절장애는 근본적으로 상대방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인 ‘갑’으로 인식하는 특권의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빈곤한 내면에서 느끼는 지위불안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이어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김찬호, 『갑을관계의 감정사회학』, 『안과 밖』 제38호, 영미문학연구회, 2015, 91~92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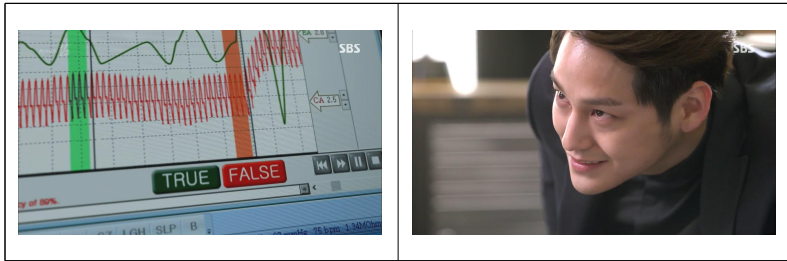
<장면 3>은 살해하려던 서진우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 상태에서 그 화를 우연히 만난 여성 운전자에게 푸는 상황이고, <장면 4>는 비서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목을 조르며 분풀이를 하는 상황이다. 두 장면 모두에서 알 수 있듯이 남규만은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도 웃음을 짓고 있다. 이를 통해 남규만은 상대방이 자신의 뜻에 반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폭행을 통해 해소하고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인물을 알 수 있다.

<장면 4>처럼 이 작품에서 남규만이 폭행을 할 때 짓는 웃는 표정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자신의 도가 관철되지 않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 폭력은 의지 관철의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원적인 수단이다. 남규만은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어려운 방법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폭행은 다른 작품에서의 살인과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유의 표정과 3장에서 서술할 완고한 부모라는 존재로 미루어봤을 때 남규만은 유아기 때 정신 발달²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시오패스가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앞서 헤어가 제시한 특성 중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아니라 ‘유년기의 문제 행동’이 성인의 몸을 통해서 구현되는 케이스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세스캡 2>는 아줌마 경찰 고윤정이 여러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소시오패스 이로준은 그 어떤 작품보다도 패륜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ㅉ 캐피탈의 대표이사인 이로준이 저지른 범죄는 친아버지·와인바 종업원·목격자 살해, 대학총장 사체 이용, 환자 아버지 매수 및 자살 교사, 경찰 감금 및 폭행 등이다. 작품은 이로준이 고윤정에 의해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1) 그린스펀은 아동의 의식 발달을 여섯 단계로 구분했고, 이 중 남규만은 2~4단계인 타인 인식·반응과 피드백·상황 파악에서의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소시오패스 성향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제레미 리프킨, 앞의 책, 132~135면).

이로준이 가장 극악무도한 소시오패스로 그려지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특성들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그것이 천륜까지도 넘어서버리기 때문이다.



<장면 5>

<장면 6>

<장면 5>는 이로준이 자신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고, <장면 6>은 어머니 서정미에게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일단 이로준이 거짓말이 뻔히 드러날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거짓을 말한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의 기본 특성인 죄책감 결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속으로 생각했던 살인 경험의 대상은 다름 아닌 친아버지이다. 친아버지를 죽이고, 진실을 추궁하는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죄책감 없이 말할 정도로 이로준은 극단적인 패륜성을 보여준다.

살인이라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넘어서는 이로준은 어머니에게 비정상적인 애정과 집착을 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로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로준 엄마. 나는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잘못을 하든 그럴 리가 없는 우리 아들,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세상 무서

운 줄 모르는 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최고였고, 지금은 내가 왕이잖아. 그니까 엄마도 내 말 들어야 돼요. 유 총장님 만나요. 그런데 거기까지야. 나한테 아버지는 돌아가신 그 사람 하나로 충분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절대, 누구하고도 결혼은 안 돼요. 아셨어요?(1회)

위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로준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어머니에 대해서는 집착과 소유욕을 지니고 있다.²²⁾ 또한 스스로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왕’이라며 자랑스럽게까지 말하고 있다. 부모와의 관계 측면에서 이로준은 스스로를 승리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오이디푸스적 욕망이 현실화된 듯한 패륜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재경, 남규만, 이로준을 통해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살인·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소를 지은 채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며,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그 사실마저 숨기지 않는다. 이들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상대방이 느끼게 될 고통이나 피해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에게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상대방의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들에게는 상식화된 도덕이나 기본적인 법 자체가 아무 효력을 끼치지 못한다.

둘째, 시간이 지날수록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더욱 극단적이고 개성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

22) 아버지를 적대하고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이로준의 심리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아버진 그냥 거기서 다른 여자 만나요.”(5회)라는 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는 모습이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가운데 <별그대>의 이재경은 특유의 행동과 장광설의 대사로, <리멤버>의 남규만은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미세스캡 2>의 이로준은 천륜마저 넘어선 극악무도한 행동으로 개성화되었다. 이는 헤어가 제시했던 소시오패스의 여러 특성들이 갈수록 작품 안에 하나씩 적용되면서 캐릭터의 구체성으로 이어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중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의 존재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극적 캐릭터로도 자리를 잡고 있다.

셋째, 소시오패스의 악행이 일상으로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싸인>에서는 강서연의 악행이 연예계와 정관계에만 국한되어있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본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그것이 보다 일상적인 상황으로까지 확산된다. 소시오패스의 악행은 <별그대>처럼 개인의 사랑을 방해하기도 하고, <리멤버>처럼 나의 부모를 해하기도 하며, <미세스캡 2>처럼 가난한 서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등 점점 평범한 개인의 일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불가해한 존재로서 아무 이유 없이 중범죄를 저지른다고 여기는 현실의 소시오패스가 캐릭터화 되었을 때에는 나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추가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응징과 양가감정

전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악은 합당한 인과관계로써 파악되는 것이었고, 그 인과관계는 악의 응징에 필연성을 부여한다.²³⁾ 그런 점에서 사이코패

23)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188면.

스와 소시오패스가 원론적으로 구분되는 이유 중 하나인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극적 개연성의 측면에서는 평범했던 인물들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계기이자, 작품의 사회문화적 의미의 측면에서는 재벌 소시오패스 설정이 어째서 활용되는지를 방증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별그대>의 이재경은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소시오패스가 된 인물이다. 작품의 마지막 회에서는 수감된 이재경을 아버지 이범중이 찾아가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때 이범중은 아들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말한다. 어린 시절 이재경은 친구와 싸우다 눈을 실명시켰고 이범중은 이를 돈으로 무마했다. 이때부터 이재경은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더불어 돈이 많은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점을 깨닫는다. “오래 전부터 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무 걸리적거렸거든. 아버지 내가 형보다 늦게 태어났던 이유로 나에게 어떤 권리도 주지 않았어.”(18회)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친형을 죽인 이유도 아버지가 가진 부와 권력을 이어받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이재경의 소시오패스 성향 발현에는 이들의 죄를 돈으로 무마한 아버지 이범중의 잘못된 양육이라는 원인이 존재한다.

<리멤버>는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작품이다. 오직 돈과 권력을 탐하며 살아온 남일호²⁴⁾는 아들 남규만에게 후계자로서의 삶을 강요해왔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노조절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남규만에게 남일호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강요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동시에 아버지에게 대한 인정욕구²⁵⁾도 지니게 되었다. 그가 저지른 대부

24) 사실 이 작품에서 남규만보다 더 큰 악인은 아버지 남일호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처음부터 남규만이 오정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다. 또한 수십 년 전에는 일호그룹을 세우기 위해 경쟁사인 서광그룹 폭발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다.

25) 인정욕구란 “끊임없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동의를 얻거나 확인 받고 싶어

분의 범죄들은 바로 이 인정욕구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원치 않았던 유학과 후계자 교육의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을 투약하고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한 것은 물론 살인을 한 뒤 계속 범죄를 저지르며 진실을 은폐하려 한 것은 모두 권위적인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한편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한 이중적인 심리 때문이다. “이번 일로 아버지 눈밖에 나면 난 사형이야, 사형!”(4회) 같은 대사는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소시오패스가 된 남규만의 심리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미세스캡 2>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잘못된 양육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로준의 아버지 이범진 회장은 무일푼으로 사채업을 시작해 E 캐피탈이라는 그룹을 세운 인물이다. 비록 말년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식으로 선행을 하려고 했지만, 작품 곳곳에서 언급되는 말들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삶 전반은 전형적인 사채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로준은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피아노 피아노 치고 싶은 거 참으려고 여기 인대까지 꿰었어. 근데 아버진 회사 경영하는 것밖에 몰랐고 나도 그렇게 살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18회)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남규만처럼 아버지로부터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하는 회사를 포기하려 하자 살인을 저질렀고 이때부터 소시오패스 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2장에서 인용한 <장면 6>의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는 이로준이 잘못을 했을 때 혼내지 않고 맹목적인 애정만 쏟음으로써 그가 소시오패스가 되는 데에 일조했다.

하는 욕구”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 불안 장애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변경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소시오패스가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부모에게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의 기형적인 관계로 인해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 이들은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인정욕구를 지니거나 그에 대항하는 반동의 심리로써 소시오패스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때문에 이들이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가치관을 내재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별그대>의 이범중은 S&C 그룹의 회장이고, <리멤버>의 남일호는 일호그룹의 회장이며, <미세스캡 2>의 이범진은 E 캐피탈을 세운 인물이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한국사회 최상위층을 아버지로 둔 세 명의 소시오패스는 문자 그대로 부와 권력을 세습한 재벌 2세들이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세대가 그 윗세대로부터 부와 권력을 물려받았는가, 아니면 자수성가한 인물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가난한 상태에서 재벌이 된 남일호·이범진이나, 전사를 알 수 없는 이범중이나 똑같이 왜곡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그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져 소시오패스 성향을 발현시키게 되었다는 점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임을 보여주거나(이범중), 강압적으로 훈육하거나(남일호), 기업을 계승시키기 위해 자식의 꿈을 포기시키는 양육(이범진), 즉 배금주의와 인간의 도구화가 그것이다. 이들 부모세대에게는 자식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자식들이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바라는 욕망만이 존재한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부터 세 명의 재벌 소시오패스들은 특권의식을 내재하게 되었다.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살인과 폭행을 일삼음에도 일말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애초부터 상대방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부와 권력을 물려받은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바로 그 부와 권력을 타인과 자신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재경 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넌 날 건드렸잖아.(10회)
 도민준, 잘 들어. 세상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
 은 몇 되지 않아. 나머진 모두 불필요한 벌레 같은 존재들
 이야. 그런데 가끔 그 벌레들이 거슬리게 굴 때가 있어. 그럴
 땐 그것들을 제거하는 게 맞아.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건 악이 아니고 선이야.(15회)

남규만 그게 내 죄야? 쥐뿔도 없는 그 인간 죄지. 누가 나대신 감방
 가 달래? 뭣도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3회)
 꼭 형사님.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처럼
 이렇게 바닥에 바짝 기어야 겨우 사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평생 긴다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11회)

이로준 사람들은 통장에 찍힌 이 숫자놀음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돈
 은 구경도 못하면서.(2회)
 이해인 씨는 죽으면 잃을 게 없잖아. 난 죽으면 많은 걸 잃어
 요.(10회)

위의 대사들로부터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
 는지, 그리고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있다. 이재경은 세상의 중심에
 오직 자신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거슬리게 한 이들을 죽이는 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식의 아버지의 물질
 만능주의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힘의 원천인 돈
 을 차지하기 위해 큰 형을 죽이고 후계자가 된 이재경은 자연스럽게 스
 스스로를 신격화한다. 남규만은 유아적인 정신 상태만큼이나 일차원적인
 특권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절대적 권위를 지닌 남일호의
 후계자라는 점 하나로 자신을 특권화한다. 남규만은 자신이 태생적으로

특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품지
 않는다. 다른 인물들의 대사와 달리 유독 당위적인 표현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남규만에게는 평
 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로준은 세 인물 중 가장 직접적으로 돈을 언급한다. 사채회사인 E 캐피
 탈의 대표답게 그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 그가 작품 안에서 사
 람을 죽이고 이용하는 모든 상황에는 돈이 관련되어있다. 위 인용문의 10
 회 대사가 대표적이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목격자를 앞에 두고
 그는 두 잔의 물 중 한쪽에만 독약을 탄 뒤 선택하는 게임을 강요하고,
 거액의 빚 탕감과 유족의 안위를 보장한다는 말로 현혹해 목격자가 스스
 로 자살하게끔 유도한다. 이처럼 이로준은 막대한 부를 통해 자신과 가
 난한 사람들을 구분 짓는다.

그런데 특권의식의 기제가 되는 부와 권력은 이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
 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세습된 것이다. 특권의식의 원천을 본인
 이 노력해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 심한 좌절을 느끼는 것은 그래서이다.



<장면 7>

<장면 8>

<장면 9>

<장면 7>은 이재경이 아버지로부터 교도소에서 꺼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장면, <장면 8>은 남규만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버
 림을 받고 자살을 하는 장면, <장면 9>는 이로준이 아들의 살인을 알게

된 어머니로부터 괴물이라는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소시오패스 성향 발현의 원인이었던 부모로부터 부정당하게 되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격한 감정을 내비친다.²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부터 만들어진 인물이다. 때문에 부모로부터 부정당하는 것은 악의 출현 원인으로부터 당위적으로 마련된 인과응보식의 사적 응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악의 출현과 응징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벌 소시오패스는 사적으로만 응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 의해서 공적인 측면에서도 응징된다. 작품 안에서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주인공과의 사적인 관계로부터 악으로 규정되지만, 최종적으로 공권력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공적 응징이라는 결과가 수반되는 맥락이 곧 재벌 소시오패스에 담긴 동시대의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별그대>의 이재경은 도민준과 천송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소시오패스다. 때문에 그에 대한 응징은 천송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도민준의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최종적인 처벌은 법적인 차원에서 이뤄진다. 작품 말미에 이르면 외계인 도민준의 정체는 세상에 모두 공개된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의 공권력은 그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도민준이 초능력을 발휘해 수집한 이재경의 범죄 증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도민준 역시 천송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재경을 직접 제거하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유석 검사를 통한 법적 처벌

26) 참고로 이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재경의 아버지 이범중은 자신의 잘못된 양육이 자식을 소시오패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준의 어머니 서정미 역시 남편의 압박과 자신의 무조건적인 칭찬과 믿음이 자식을 소시오패스로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이사회 대표 이사 교체 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오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는 것을 평생의 신조로 살아온 남일호는 자식에게도 “능력 안 되는 놈을 후계자로 세운 내 잘못이야. 이제 난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평생에 이것만은 틀림없어. 사람은 쓰임이 다하면 버려야 한다.”(20회)고 말한다. 유일하게 남규만만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데에는 이런 맥락이 존재한다.

을 선택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소시오패스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사적인 목표가 공권력에 의한 법적 응징으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리멤버> 또한 마찬가지다. 서진우와 남규만이 대립하게 된 원인은 남규만이 서진우의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서진우의 일차 목표는 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서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규만의 범행을 모두 입증하려 한다. 남규만의 부와 권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범행을 입증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누명 또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진우가 변호사가 된 것도 아버지의 무죄 입증과 남규만에 대한 처벌이 한데 얽혀있는 상황에서 사적 복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는 사적인 목표가 법적 처벌이라는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며 완결되는 형태이다.

<미세스캡 2>도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로준 응징에는 고윤정의 사적 인 측면이 계기로 존재한다. 애초에 전혀 관련이 없던 두 사람이 얽히게 되는 계기는 5년 전 분당 여대생 살인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고윤정 개인의 죄책감 때문이다. 고윤정은 이로준을 범인으로 또다시 잘못 지목하고, 이로준은 그녀를 상대하며 흥미를 느낀다. 고윤정은 수사 과정에서 이로준이 연쇄살인범이 아님을 알았지만, 그의 특권의식에 환멸을 느끼면서 이로준의 주변을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이로준의 악행을 알게 되자 그를 응징하고자 한다. 즉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고, 처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로준이 응징되는 데에는 고윤정의 죄책감이라는 사적인 감정이 동력으로 존재한다.²⁷⁾

세 명의 소시오패스가 최종적으로는 공적인 측면에서 응징된다는 점은 영화의 소시오패스가 대체로 사적 복수로 응징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²⁸⁾ 영화의 소시오패스는 트라우마나 범죄 동기가 제거되

27) 5년 전 고윤정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를 지키려는 검사 남편이 증거를 훼손해 스스로 진실을 묻었다는 죄책감을 지니고 있다. 그녀가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진범을 잡기 위함이었다.

고 과잉된 광기로만 그려지곤 한다. 이는 신성과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 의식적으로 악을 우리와 분리하려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 역시 어디까지나 개인 주체에 의해, 광기에 맞선 광기의 복수로만 이뤄진다.²⁹⁾ 반면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는 사적 영역으로부터 출현하여 공적 영역에서 응징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대 이후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는 더욱 극악무도하게 그려지면서 개인의 일상 영역으로까지 악행을 확장시키고 있다. 평화로운 나의 일상에 침투하는 불가해한 존재인 소시오패스에 대해 축출과 응징의 심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것이 사적 영역에서는 결코 이뤄지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특히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인공들이 소시오패스로부터 당하는 피해가 사적인 차원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에게 사적 복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됨에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시오패스에 대한 공적 응징의 당위성³⁰⁾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벌 소시오패스는 부모로부터 부를 세습해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부와 권력을 지닌 존재들이다. 이들의 힘은 이미 공권력을 넘어서있다. <별그대>의 이재경은 검사를 폭행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리멤버>의 남규만과 <미세스캡 2>의 이로준은 수많은 정관계 로비와 검경 매수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

28) 본고에서 언급한 소시오패스 영화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추격자>, <악마를 보았다>, <김복남 살인사건> 등이다. 최근에는 <베터랑>처럼 텔레비전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재벌 소시오패스가 등장하는 영화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이러한 영화들에 나타난 소시오패스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기존 소시오패스 영화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에서 재벌이 아닌 소시오패스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경우도 본고의 논의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9) 오승현, 앞의 논문, 145~155면.

30) 영화에서의 법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사이코패스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능을 한다(박시성, 앞의 논문, 79면). 하지만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는 법을 초월하는 처벌과 결합했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파멸한다는 점에서 기존 질서를 다시금 강화하는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지 않는 상황이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범인 역시 그 사실을 숨기지도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부와 권력을 지닌 그들을 처벌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작품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던 재벌 소시오패스를 법으로 응징하는 결말을 취한다.

부모의 부정이라는 사적 응징은 부모가 출현시킨 소시오패스 성향을 원인으로 한 개연성 확보와 인과응보식 결말이다. 그렇다면 공권력과 법에 의한 공적 응징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일까? 그것은 이들이 부와 권력을 지닌 ‘재벌’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소시오패스가 계층과 무관한 광기의 괴물로서 그려지면서 역시 광기어린 개인의 복수로 처단되는 것과 달리 이들에게는 재벌이라는 계층의 문제가 결합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응징은 나의 일상에 침투한 소시오패스에 대한 축출의 심리에만 머물지 않고 재벌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의식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재벌 부모, 그리고 부모의 부와 권력을 세습해 소시오패스가 되는 재벌 2세대들. 표면적으로 보면 당위적으로 보이는 이 관계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다. 부와 권력을 신봉하는 부모의 가치관이 과연 부당한 것인가가 그것이다. 물론 <별그대>의 이범중처럼 돈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한 악행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 행동을 야기하는 가치관 자체가 나쁜 것인가? 달리 말하면,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저지르는 범죄를 모두 지우고 보았을 때,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악인이라고 치부되는 존재인가?

이재경, 남규만, 이로준은 한결같이 빼어난 외모에 수려한 말솜씨, 그리고 유능한 경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다. 범죄라는 악행을 제외하고 보면 이들은 각자 자신이 속한 조직 안에서 합리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인재들이다. 전대에 비해 회사를 더욱 키우고 있는 이재경과 이로준은 물론이고, 남규만 또한 공적인 측면에서는 권위적인 남일호의 인정을 받아 후계자가 될 정도로 유능함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불법적

인 회사 경영을 하지만 그것은 법 이상의 권력을 지닌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는 대기업이 불법 중여, 탈세 등을 자행하고 있음에 대중이 알고 있음에도 처벌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의 형국과 유사하다. 대기업과 그것을 소유한 재벌가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³¹⁾ 대기업이 한국사회에서는 족벌로 경영된다는 점에서 바로 이 세습을 통해 부와 권력을 얻고, 그것을 특권화해 거침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재벌 소시오패스의 응징에는 근본적으로 재벌가에 대한 대중의 처단 의식이 담겨 있다.

이들이 과연 현대사회에서 악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때 애매함이 생기는 것은 이 지점이다. 도덕의 측면에서 이들의 범죄는 분명한 악행이다. 그러나 범죄를 차치하고,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들을 보면 악인이라 단언하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에게서 소시오패스 항목을 가리고 보면 이들은 현대사회의 귀감이 될 만한 인재들이다. 그것은 이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가치관, 즉 부와 권력을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사실상 현대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이고 심지어 권장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³²⁾ 부와 권력에 따른 특권 의식, 그 기저에 있는 물질만능주의는 자본주의 현대사회의 구성원에게 조금씩은 존재하는 욕망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상적인 가치로까지 말해진다.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런 세속적인 욕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고, 때때로 그 욕망이 달성된 사람들, 즉 부자는 경쟁에서 이긴 신자유주의 사회의 승리자로까지 인식된다.³³⁾

31) 양준모,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반기업정서에 관한 연구 :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10면.

32) 신동준, 앞의 논문, 165~167면 참고.

33) 이때의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토대로 만들어진 ‘경쟁’ 중심의 시스템을 말한다. 푸코는 교환 가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 18세기 유럽이 신자유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점차 그 원리가 경쟁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몸마저도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1인 기업화된다(미셸 푸코, 심세광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012, 78~81, 181면).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

재벌 소시오패스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바로 이 지고의 가치인 부와 권력을 지닌 재벌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³⁴⁾으로부터 나온다. 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그로부터 사회적 ‘갑’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이라면 한번쯤은 꿈꾸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욕망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현실의 존재들, 즉 재벌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재벌에 대한 동경이 강했지만, IMF 사태 이후 그들의 치부를 목도하면서 대중이 애증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³⁵⁾은 그래서 중요하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재벌가의 실체는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³⁶⁾ 그러한 ‘갑’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중은 ‘을’로서 분노하고 비난하며 조롱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중은 또 다른 ‘을’에게 또 다른 ‘갑질’을 행하기도 한다.³⁷⁾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설정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맹목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갑질’, 또는 ‘을질’은 우리 자신의 모순적인 심리를 그대로

는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한, 혹은 애초에 그 시스템을 초월해있는 최상위 ‘갑’의 인물들이다.

34) 이때의 양가감정은 탈식민주의적 개념이라기보다 심리학적 개념이다. 프랑코 모레티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타부화된 공포의 대상에 증오와 사랑을 동시에 느낀다고 보았다. 이때의 양가감정은 공포의 대상을 대하는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정신 안에 존재”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보다 금기시되는 것을 억압해야 한다(프랑코 모레티, 앞의 책, 50~51면). 즉 재벌에 대해 대중이 갖는 양가감정은, 타인을 죽이는 소시오패스라는 더 큰 금기를 상징함으로써 재벌을 처단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35) 이영미, 「재벌에 대한 애증과 신데렐라 이야기의 대응」, 『황해문화』 제73집, 새얼문화재단, 2011, 362~363면.

36) 2007년 이승연 한화회장의 보복 폭행사건, 2010년 최태원 SK회장 사촌동생의 매값 폭행사건,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횡포사건,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등 이른바 ‘갑질’에 의한 사건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2016년 수면 위로 떠오른 옥시의 가슴기 살균제사건, 9월 현재진행중인 넥슨의 청와대 민정수석 로비 의혹, 이진희 삼성회장의 성매매 사건 등 재벌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37) 여성 운전자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김여사’, 특정 집단을 획일화해 비난할 때 쓰이는 ‘xx층’과 같은 최근의 신조어들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타인을 맹목적으로 비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비정규직/성소수자에 대해 가해지는 각종 폭력은 한국사회에서 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갑질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여준다. 자신과 타인을 견주어 수직 관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라 ‘갑질’을 행하는 모습은 우리 내면에 이미 부와 권력, 나아가 재벌에 대한 동경이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한다.

재벌 소시오패스의 응징에 공권력이 동원되는 이유는 그래서이다. 소시오패스라는 측면을 제거하고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롤모델로까지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이재정, 남규만, 이로준이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을 양가적으로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의 원천인 부와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벌 중심으로 이뤄진 한국의 경제상황³⁸⁾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신 소시오패스로서 저지르는 악행이 재벌을 처벌할 손쉬운 근거가 된다.³⁹⁾ 욕망의 대상인 재벌을 처벌할 때 발생하는 자기모순을 피하고자 재벌 자체를 우리와 다른 ‘비정상’ 소시오패스로 규정해버리는 것이다. 작품 안에서 소시오패스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같은 재벌이 아닌 소시민을 향해있다. 재벌이 벌이는 불법 경영은 엄밀히 말해 나오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그들만의 일이다.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지언정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 재벌의 악행이 간극을 넘어 나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타자이자 이방인인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소시오패스에 의해 이뤄졌을 때 비로소 그들에 대해 쌓였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결국 소시오패스는 재벌에 대한 대중의 양가감정을 심리적으로 보완하면서 그들의 처벌을 정의 구현으로 비치게끔 하는 극적 장치이다.⁴⁰⁾ 정

38) 한국식 재벌의 뿌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이후 일부 지주들은 토지 임대 및 매매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고, 이들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본 재벌과 매우 유사했다(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한울 아카데미, 2012, 127~132면).

39) “사이코패스라는 ‘비정상’적인 인간의 부류를 상징하는 것은 (불가해한 중범죄가 만연하는 사회의) 매우 편리한 이해 방식이 된다.”(신동준, 앞의 논문, 147면)(괄호 필자)

40) 이는 최근 텔레비전드라마의 재벌 남성이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의 반대급부다. 이영미는 재벌에 대한 대중의 애증이, 로맨틱 코미디에서 재벌을 우

상의 기준에서 비정상을 판단하는 또 다른 폭력⁴¹⁾인 이러한 소시오패스의 기능적 활용은 작품 안 재벌 소시오패스가 내세우는 특권의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똑같은 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되, 그것을 세습이라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소유한 재벌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함으로써 자신을 특권화하려는 대중의 심리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이다. 재벌 2세 소시오패스는 그저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력’ 없이 경쟁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중의 질시는 자연스럽게 축출의 심리로 이어진다. 나아가 재벌 소시오패스는 재벌을 징벌하고자 하는 대중의 특권적 욕망이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공적 응징은 실제 현실의 공권력의 기능 상실이나 불신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재벌 소시오패스를 응징하는 공권력은, 재벌을 벌하기 위해 삽입된 소시오패스 설정만큼이나 상상적 정의 실현 도구에 불과하다.⁴²⁾ 대중에게 이 공권력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재벌에 대해 비로소 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소시오패스로 처벌함으로써 느끼는 자위적 쾌감, 그 실체 없는 정의의 힘인 셈이다.

4. 계층적 단절과 소시민적 정의

주지하듯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타인과의 교감을 거부한다

스팅스럽게 만든다고 보았다(이영미, 앞의 글, 365~366면). 마찬가지로 <킬미, 힐미>, <하이드 지킬, 나>와 같은 작품은 재벌 남성에게 다중인격이라는 장애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마련하고 있다.

41)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104면.

42) 이창우는 괴물이 “사회 해체의 경험과 지배 질서 구축에 관한 신념 사이의 모순(이윤배반)을 상상적으로 해소하는 예술 장치”라고 보았다(이창우, 앞의 논문, 46면). 그런 점에서 재벌 소시오패스 텔레비전드라마의 진정한 괴물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것을 상상적으로 응징하는 공권력일지도 모른다.

는 것은 소시오패스와 일반인 사이에 큰 인식적/현실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재벌 소시오패스는 이 간극을 넘어서려 노력하지 않는다.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감, 공감, 소통 같은 관계는 쌍방 모두와 관련된다. 하지만 재벌 소시오패스처럼 처음부터 타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는 이에게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재벌 소시오패스가 일반인을 공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일반인 역시 그들에게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⁴³⁾

<별그대>에서 이재경의 악행을 도민준은 이해하지 못한다. 누구도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재경이 왜 살인을 저지르고 천송이를 위협하는지 도민준은 끊임없이 되묻는다. <리멤버>와 <미세스캡 2>도 마찬가지다. 서진우와 고윤정은 재벌 2세인 남규만과 이로준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지,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재벌 소시오패스에게는 그런 행동이 자연법칙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무엇보다 이들의 특권의식은 사실 대중의 눈에 비친 재벌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라는 설정이 재벌에 대한 단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이 불통의 근거로 말하는 특권의식은 실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재벌에 대해 대중이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안에서 부와 권력, 그리고 특권의식 등은 근본적으로 현실의 재벌과 서민의 계층적 단절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현실에서 처벌할 수 없는 재벌을 텔레비전드라마 안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응징하는 양

43) 소통을 거부하는 소시오패스는 바로 그 속성으로부터 악으로 치부되지만, 역으로 말하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면 언제든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 스스로를 소시오패스로 진단한 M. E. 토머스는 소시오패스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세간의 편견을 부정하며 소시오패스의 감정은 단지 검고 차가울 뿐이라고 말하고, 괴물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괴물이듯, 정상인의 범주에서 소시오패스를 타자화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M. E. 토머스, 김학영 역, 『나, 소시오패스』, 푸른숲, 2014).

상이 이를 반증한다. 작품의 결말에 이뤄지는 공적 응징은,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채택된 완전한 단절을 뜻한다.

재벌 소시오패스는 이미 관계를 끊었고, 반대로 일반인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시도하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현실 속 기득권과 시민의 관계와 유사하다. 광우병,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사드 배치 사태까지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은 바로 이 왜곡된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공포를 수반하고 있다. 먹거리가 병을 야기한다는 공포, 일상의 어느 때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병을 치료하는 곳에서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집이라는 삶의 터전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공포가 그것이다. 또한 이 공포는 점차 나의 일상으로 침투하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화/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으면,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공포와 위협은 일상의 터전인 집에, 그리고 24시간 내내 존재하게 되었다.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무관하다는 인식은, 어쩌면 나도 관련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안의 목소리는 그것을 야기한 기득권층과 무관한 곳에서만 소비되고 있다. 기득권층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적 사안에 대한 프레임을 왜곡, 불안의 목소리에 균열을 일으키고 상호간의 반목을 야기하는 전략⁴⁴⁾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득권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숨기지도 않고 있다.⁴⁵⁾ 이러한 총체적인 소통 부재의 상황은 어느 한쪽의 관계 단절 이상의 상황이다. 마치 도민준, 서진우, 고윤정이 지속

44) 『“외부세력은 빠지라고? 세월호 때도 그랬잖나”』, 『미디어 오늘』 2016년 7월 21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11>, 2016년 9월 11일 최종검색).

45)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경향신문』 2016년 7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82025001&code=940100#csidx41abb55e44be96fac91ae32165942f5, 2016년 9월 11일 최종검색)

적인 시도 끝에 소통을 포기했듯이, 현실의 소통 부재 상황은 서민층의 계속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 공감하지 않으면서 일어났다. 이런 단절 이후가 작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대립과 반목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 이상의 공감과 소통을 모두가 바라지 않는 단절의 상태에서 다시 가시화되는 것은 그들과 나를 구분 짓는 기준, 바로 부와 권력이다. 부와 권력은 작품 안에서는 제벌 소시오패스와 일반인이 구분되는 시작이고, 현실에서도 기득권층과 서민이 구분되는 기준이다. 또한 그로부터 발생한 간극이 넘을 수 없는 단절로 확대되면서 다시금 주목받는 지표다. 부와 권력은 단절을 야기하고 단절을 완성시키는 환원적 구조의 핵심 동력이다.

텔레비전드라마의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그래서 소환된 것이다.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지속되어 단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감의 불가능이 현재진행적인 상황이라면 단절은 그 결과다. 즉 기득권층이 서민에게, 서민이 기득권층에게 공감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과 그로부터 다가올 완전한 소통 단절의 미래에 대한 동시대의 감각이 소시오패스 캐릭터를 만들어낸다. 이는 3장의 응징 양상과도 관련된다. 영화에서의 사적 복수는 역설적으로 동일시와 공감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소시오패스를 다룬 최근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그러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영화에서의 사이코패스가 현실의 공포를 재현한 존재로서 공권력의 부재를 상기시키기 위해 더욱 악마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면, 텔레비전드라마에서의 소시오패스는 일상으로까지 확산된 소통 부재의 상황과 이를 구조화한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소시오패스는 소통 부재의 한국사회의 지표이자 징후인 셈이다.

가장 최근작인 <미세스캡 2>의 결말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46) <악마를 보았다>에서 사이코패스 장경철에게 복수하는 김수현이 그와 같아지는 것, <살인의 추억>에서 박두만이 “밥은 먹고 다니냐”며 묻는 것이 대표적이다.

래서이다. 이 작품은 이로준이 구속된 뒤 고윤정의 강력 1팀이 지속적으로 활약을 하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은 팀원들의 내레이션으로 마무리된다.

- 강상철** 세상은 불공평하다. 훔치고 사기 치는 놈들은 잘살고, 뺏기고 당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산다.
- 오승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세금이나 회사 돈 수십억을 끌궜하는 많이 배운 도둑보다 폰돈이나 훔치는 못 배운 절도범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 신여욱** 세상은 진짜 불공평하다.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사람들보다 잘못을 부정하고 숨기려는 자들이 더 당당하다.
- 배대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세상이 공평하면 도둑질할 이유도, 사기 칠 이유도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할수록 도둑놈은 늘어나고 세상은 무섭게 변한다.(20회)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불공평한 세상’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법적 정의가 부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⁷⁾ 이들은 세상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중범죄자와 경범죄자가 그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가해자는 악, 피해자는 선으로, 중범죄자는 큰 악, 경범죄자는 작은 악으로 나누고 있다. 이것이 타당한지를 떠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과 이분법으로 나눈 항목들에 아무 근거 없이 선악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이들의 세계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시민인 이들은 스스로 세계를 계층적으로

47) 2012년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은 돈이나 권력을 지닌 기득권층이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18면). 이는 같은 방식으로 4년 전에 이뤄진 조사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결과(같은 책, 272~273면)로, 작품 안에서의 대사가 결코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나누고, 자신을 선과 ‘을’에 놓으면서 악하고 ‘갑’인 상대방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단절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고윤정 그러나 진짜 무서운 건 누구도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다. 지난 19년 간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로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피해자엔 분명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다. 차라리 내가 저 놈을 죽였더라면 조금은 덜 불공평했을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선 안 된다. 그래서 가끔 경찰인 내가 싫다. 하지만 대부분 내가 경찰인 것이 좋다. 어쨌든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조금 더 공평해지는 그날까지.(20회)

뒤이어 나오는 고윤정의 내레이션은 분열적이다.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단절적 세계관을 내재하고 있는 그녀는 계층화된 세계를 부정하는 한편 인정하고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선 안 된다.”는 말은 작품 속 그녀의 상황과 어긋난다. 고윤정은 이로준의 죄가 아니라 그의 인간됨됨이에 분노해 표적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계층화된 세계에서 한걸음 물러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는 공권력인 ‘경찰’이기 때문이다. 경찰이기 때문에 무작정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다는, 하지만 나의 행동이 세상의 계층화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현실도피적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은 부와 권력에 의한 세계의 양극화를 이미 인정한다. 이들이 바라는 건 양극화된 세계 자체의 철폐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법적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극히 소박한 정의로운 세계다. 계층화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재벌은 악한 재벌과 선한 재벌이라는 두 부류로 나뉜다. 전자에게는 소시오패스라는 성향을 부여해 처벌할 근거를 세우고, 후자

에게는 자본주의 사회의 승리자로서 동경의 마음을 품는다. 재벌 소시오패스는 재벌에 대한 현실 대중의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이 소시민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 소환한 캐릭터이다. 재벌을 부정하지만, 그 부정으로부터 자기모순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대중이 소환한 부정의 부정⁴⁸⁾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의 공고해진 계층화 상황에서 이러한 대응은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소시오패스라는 절대악을 동원해서까지 재벌을 타자화하려는 시도로부터 한국사회 대중의 생존 방식을 읽을 수 있다. “타자와 적절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막아주던 상징적 방어벽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⁴⁹⁾으로 타자와의 소통을 의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지적의 말이 그것이다. 전후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배태된 대기업과 재벌은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집단이 되었다.⁵⁰⁾ 하지만 재벌의 부도덕함이 드러났어도 그들 자체를 부정하는 건 한국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여전히 동경과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재벌에 소시오패스 이미지를 부여해 의식적으로 타자화하는 것은 바로 그 부와 권력의 가치만을 보존하고자 하는 대중의 “예의바른 사람”⁵¹⁾인 척하는 제스처라 할 것이다.

한편 더욱 극악무도하게 그려지는 재벌 소시오패스는 대중의 분노와 연동한다는 점으로부터 한국사회의 반민주적 상황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갑을관계의 위치성을 영구적으로 전복하는 것, 없애는 것”⁵²⁾이지만, ‘갑’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거세지는 신자유주의의 사

48)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16면.

49)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96면.

50)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경제자유화 정책의 대가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았고, 1990년대 초반 김영삼 정권은 경제자유화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재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금융통제는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는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간접적 개입을 지향한 김대중 정권의 경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였다(김윤태, 앞의 책, 313~340면 참고).

51) 위의 책, 같은 면.

52) 문강형준, 『감각의 제국』, 북노마드, 2015, 241면.

회에서는 오히려 극단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끝없는 대립과 경쟁, 그로부터 상상적으로 권장되는 희망이야말로 신자유주의 사회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의 악행에 의해서, 소통하지 못해서, 부와 권력을 동경하지만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분노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회를 다시금 공고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극단적인 단절의식이 근본적인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이다.

전자가 재벌 소시오패스가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지표라면, 후자는 그것이 발산하는 징후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재벌에 대한 양가감정처럼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소통은 하나의 신화다. “모든 문제를 대화의 부재 탓”으로 여기는 프레임 안에서 소통은 “믿음을 상실한 시대의 믿음”이다.⁵³⁾ 소시오패스에는 소통에 대한 열망과 포기가 함께 담겨 있고, 재벌 소시오패스에는 재벌에 대한 거부와 동조라는 이중적 심리가 함께 존재한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재벌을 다룬 텔레비전드라마는 그들을 악인으로 그리면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해왔다.⁵⁴⁾ <별그대>, <리멤버>, <미세스캡 2>에서 재벌 소시오패스가 공권력에 의해 응징되는 양상은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기제로 삼아 실제 현실의 문제를 환상적으로 봉합하는 시적 정의의 한 방식이다. 재벌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작중 설정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실제 현실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드라마는 이를 보여준다. 이때 재벌과 결탁한 공권력이 악하고, 주인공에 협력하는 공권력이 선하다는 구분은 무의미하다. 재벌 소시오패스가 응징되기까지는 주인공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범이 있어야 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솔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결말에도 악을 징벌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잘못된 개인 책임주의적 메시지가 말

53)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318~319면.

54) 양준모, 앞의 논문, 42면.

로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가 등장하는 2010년대 텔레비전드라마의 불온한 이데올로기이다.⁵⁵⁾

작품을 통해 재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나중 문제다. 중요한 건 소시오패스라는 절대악으로 설정된 재벌이 개인의 노력과 희생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공권력에 의해서만 응징되는 구도이다. 작품 안에서 이미 재벌의 발밑에 놓인 공권력은 처음부터 개인의 피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의 피해와 재벌의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어도 마찬가지다. 공권력이 움직이는 것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 그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모든 처벌 근거를 역시 피해 입은 개인이 준비했을 때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더 이상 정의를 찾고 소시오패스를 악인이라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횡행하는 악의 처벌조차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디스토피아적 현실이야말로 소시오패스의 악행 이상으로 공포스러운 사회의 참모습이다.

이는 결국 <별그대>, <리멤버>, <미세스캡 2> 이상 세 작품의 캐릭터 설정의 이유가 소시오패스가 아닌 재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시대에 따라 그 형태만 달리 했을 뿐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이고, 재벌에 대한 반감과 동경 역시 상시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 둘의 결합은 우리 시대 대표악으로서 소시오패스를 호명하는 감정 구조를 보여준다. 재벌에 대한 처벌의 욕망은 소통 의지가 없는 소시오패스라는 캐릭터를 창조해냈다. 이로써 재벌은 다시금 상상적으로 응징되는 안정의 구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55) 이는 비단 텔레비전드라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사이코패스 영화와는 달리 최근의 <베테랑>, <내부자들>과 같은 작품에서는 권력층의 악행이 개인의 일상으로까지 파고들고, 이로 인해 시작된 사적 복수가 공적 응징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베테랑>의 ‘조태오’ 같은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본고에서 다룬 텔레비전드라마의 캐릭터와 상당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재벌에 대한 대중의 양가감정이 장르를 초월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벌 소시오패스를 다룬 최근 한국영화의 변화에 대해서는 장르 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들은 약해서가 아니라, 약할 수밖에 없는 범죄자 소시오패스로서만 응징된다. 재벌이 재벌일 수 있었던 모든 가치는 여전히 선이고 존중된다.

반면 부와 권력을 갖지 못해 소시민이 된 사람들의 비애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들이 부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작품 안에서도 불가능하다. 재벌은 세습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것이고, 소시민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줄 부모는 이미 재벌 소시오패스에 의해 제거되었다. 더 이상의 희망조차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마저 인정하면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한 소시민의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응징의 양상은 그래서 더욱 어두운 전망을 의미한다. 재벌을 소시오패스로 규정하고 응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의 희생은, 역시 생존을 위해 이웃사람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개인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 캐릭터는 인간다움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악의 가장 극단적인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재벌을 상상적으로라도 응징하고자 하는 대중의 무의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재벌 소시오패스가 천륜마저 무너뜨릴 정도로 극악무도하게 그려질수록 함께 강조되는 것은 대중의 자기모순이다. 이는 그만큼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사회 대중의 소시민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감정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문체적 현실과 구조적 모순 자체를 타파할 수는 없는 자기파괴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결코 이상적인 징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이 글은 2010년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글이다. <별에서

온 그대>의 이재경, <리멤버>의 남규만, <미세스캡 2>의 이로준이 그들이며, 이들이 작품 안에 그려지는 양상은 동시대 한국사회의 각박한 현실, 그에 기인한 무의식과 관련되어있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이라는 존재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한국의 재벌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강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후의 역사에서 점차 국가와 사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그 권력을 불법적인 행동의 토대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이 재벌에 대해 느끼는 양가감정은 특기할만하다. 재벌은 부패한 권력층이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그들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재벌 소시오패스의 출현은 이러한 애증의 양가감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소시오패스라는 개념은 재벌을 단죄하기 위해 동원된 장치이다. 소시오패스는 최근 각종 중범죄자의 정체로 지목될 정도로 사회적 공포를 야기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공포 이전에 소시오패스가 의식적으로 소통을 거부한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면, 그것이 계층적으로 단절된 한국사회의 불만과 연동됨을 알 수 있다. 재벌과 기득권층에 대한 대중의 단절의식은 특권의식으로 스스로를 상대방과 단절시킨 소시오패스라는 악을 호명한다. 양가감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벌 소시오패스는 재벌로서 응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덧씌워진 소시오패스라는 악으로서 응징된다.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간극을 넘어 나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그들을 처단할 합당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재벌 소시오패스에 대한 무의식은 공감과 소통의 역설을 보여준다. 소시오패스는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공감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소시오패스는 언제든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재벌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작품 안에서 읽을 수 있는 재벌에 대한 소시민의 단절의식은 그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재벌

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실재하고 있고, 대중이 선망하는 가치의 척도를 체현하고 있다. 그들을 소통되지 못하는 존재로서 규정하고 응징하는 양상은 어쩌면 다시 한 번 그들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텔레비전드라마가 재벌 소시오패스를 재현하는 방식이 미온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으로까지 느껴지는 것도 그래서이다. 이들에 대한 응징은 사적/공적 영역 모두에서 일어나지만, 전자의 경우는 부와 권력을 물려준 같은 재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부모 재벌 또한 소시오패스 성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온적이다. 공권력에 의한 법적 처벌 역시 마찬가지다. 재벌이 공권력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때의 공권력은 개인의 희생이 있는 뒤에야 출현하는 실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현실의 처벌을 처벌할 가능성이 적고, 무엇보다 그들을 부정하면 대중 스스로 자기 모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동원되는 상상적 결말이다. 재벌이 처벌받지 않는 것보다, 상상적으로 처벌됨으로써 다시금 소시민적 정의가 부르짖어지는 상황이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글은 어디까지나 재벌 소시오패스 캐릭터의 전반적인 변화와 구현 양상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정치하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총체적인 불통이 확산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소시오패스는 비단 계층의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인 통시적/공시적 연구를 통해야만 더욱 유의미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가령 작가나 장르에 따라서, 혹은 유형화된 성격/직업 등에 따라서 캐릭터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다소 작품의 깊이 있는 분석에 이르지 못하고 전반적인 평가에 머물렀다는 점을 한계로 자각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지은 극본, 장태유 연출, <별에서 온 그대> 영상물.
윤현호 극본, 이창민 연출, <리멤버 -아들의 전쟁> 영상물.
황주하 극본, 유인식 연출, <미세스캡 2> 영상물.

2. 단행본

- 김윤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한울 아카데미, 2012.
데이비드 불, 김석만 역, 『통쾌한 희극의 분석』, 연극과인간, 2007.
로버트 D. 헤어, 조은경·황정하 역, 『진단명 : 사이코패스,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상인격자』, 바다출판사, 2005.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_____, 『감각의 제국』, 북노마드, 2015.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201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 외 역,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신외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제레미 리프킨, 이경남 역, 『공감의 시대』, 민음사, 2010.
지동욱, 『정권을 움직인 한국재벌의 어제와 오늘』, 눈과마음, 2003.
프랑코 모레티, 조형준 역, 『공포의 변증법』, 새물결, 2014.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James Blair 외, 이윤영·김혜원 역, 『사이코패스』, 시그마프레스, 2012.
M. E. 토머스, 김학영 역, 『나, 소시오패스』, 푸른숲, 2014.

3. 논문 및 평론

- 강미정, 「TV 드라마에 내재된 계급성 파악과 함축의미 연구 : <상속자들>에 대한 기초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 김찬호, 「갑을관계의 감정사회학」, 『안과 밖』 제38호, 영미문학연구회, 2015.
- 박시성, 「영화 속 사이코패스에 관한 라깡 정신분석적 고찰 : 욕망과 위반의 담론」, 『라깡과 현대정신분석』 제11권 2호, 한국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2009.
- 박지선,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한국범죄학』 제8집 2호, 대한범죄학회, 2014.
- 변경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행동억제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자기개념과 타인인정추구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송아름, 「괴물의 변화: '문화세대'와 '한국형 좀비'의 탄생」, 『대중서사연구』 제30호, 대중서사학회, 2013.
- 신동준, 「현대 사회의 '괴물', 사이코패스 이해하기 : 개념의 문제점과 이론적 위험성, 그리고 사회학적 함의」, 『현상과 인식』 제35집 1·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1.
- 양준모,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반기업정서에 관한 연구 : 대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오승현, 「사이코패스 영화에 내재된 정치적 무의식 : <악마를 보았다>,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2집 1호, 문학과영상학회, 2011.
- 이영미, 「재벌에 대한 애증과 신데렐라 이야기의 대응」, 『황해문화』 제73집, 새얼문화재단, 2011.
- 이창우,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 '괴물'과 '근원적 세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이화정, 「스릴러 장르와 사이코패스 캐릭터의 관계 연구 : 최근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외부세력은 빠지라고? 세월호 때도 그랬구나”」, 『미디어 오늘』 2016년 7월 21일(<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11>, 2016년 9월 11일 최종검색).
- 「교육부 고위간부 “민중은 개·돼지...신분제 공고화해야”」, 『경향신문』 2016년 7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82025001&code=940100#csidx41abb55e44be96fac91ae32165942f5, 2016년 9월 11일 최종검색)

Abstract

Research on Conglomerate Sociopath Characters
in Korean Television Drama

- Focused on <My Love from the Star>, <Remember>, <Mrs. Cop 2> -

Park Sangwan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conglomerate sociopath characters found in Korean TV dramas in the 2010s. Based on three conglomerate sociopath characters in <My Love from the Star>, <Remember - War of the Son>, and <Mrs. Cop 2>, portrayal of these characters was analyzed.

Conglomerate sociopaths are characterized by lack of sympathy and guilt even when they commit a crime.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in the three dramas mentioned above, the conglomerate sociopath characters emphasize their individuality and commit extreme crimes, which eventually invade life of ordinary individuals. This sociopathic tendency is promoted by inappropriate parenting. As a result, they feel immensely frustrated when rejected by the parents, and, in a personal aspect, are punished by it for their wrongdoing.

Meanwhile, the conglomerate sociopaths are also penalized officially as well, and this may result from ambivalence of the public toward conglomerates. The sociopath characters are used for offsetting the public's admiration for the rich by punishing them and counterbalancing the guilt for such admiratio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conglomerates and ordinary people reflects the class divisio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in which empathy for others has disappeared. In the end, justice is realized in imagination by punishing conglomerates by using public power and making them into sociopaths to justify such punishment. In the process, we notice the self-destructive perception of the

public, i.e., ideology that demands individual sacrifice.

Key words: ambivalence, conglomerate, division, empathy, sociopath, psychopath, <My Love from the Star>, <Remember>, <Mrs. Cop 2>, TV drama

접수일: 2016년 7월 30일

심사기간: 2016년 8월 15일~8월 28일

게재결정: 2016년 9월 13일